

“내 고향 담양, 전통 악기에 담아봤죠”

피리·생황 연주자 장유진 씨
첫 싱글앨범 ‘담다’ 발매
대나무엽 하는 부모님 영향 입문
스물네개 관 고유한 음고 매력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시도 계획

죽녹원 대숲의
창아한 바람소리
가 들리는 듯 하
다. 연주자가 불
어넣은 호흡이 스
물네개 원통을 통
해 이색적인 소리
로 울려 퍼진다.



피리·생황연주자 장유진 씨가 24관 생황으로 앨범 수록곡 ‘소쇄한 그리움’을 연주하는 모습.

다. 유려한 운지법과 음량 표현이 돋보였다. 이어 장 씨는 할머니와 함께 담양을 걸으며 느꼈던 감상을 떠올리며 작곡한 ‘나들이’를 생황으로, 재즈 버전의 ‘문 리바’는 피리로 들려줬다. 서양악기와는 다른 차원의 고아함과 운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피리와 생황이 입문하게 된 건 가족들의 영향이 컸다”며 “아버지가 담양에서 대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대나무와 친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의 결실은 팔 할이 아버지 덕이라는 얘기였다. 광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 담양에서 거주해 온 시간은 대나무 등을 모티브로 한 곡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목관악기와 친근하다”는 그의 말에는 고향에 대한 자부심, 새내기 예술가의 포부 등이 어렵잖아 담겨 있었다.

생황은 입으로 부는 파이프오르간을 떠올리게 할

만큼 구조가 복잡해 보인다. 직접 불어보니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부리 모양의 취구에 호흡을 불어 넣어 공명통 위의 지공(구멍)과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미려한 멜로디를 연주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완급조절과 음계의 조합 등을 해내기가 긴 숙달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선후배 예술가들의 활동을 보면서 건강한 자극을 받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전남대 예술대 후배들의 국악제를 다녀왔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트러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서 상황을 다루는 연주자가 드물어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 씨의 앨범 ‘담다’는 현재 국내외 모든 음원 사이트 등에서 감상할 수 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디지털 아트 전문가 만나는 미로캠프

다음달 8일까지 ‘마이크로 랩 3.0’...국내외 예술인 60명 참가

(예비)예술인들이 디지털 아트 전문가와 만나
는 창작자 워크숍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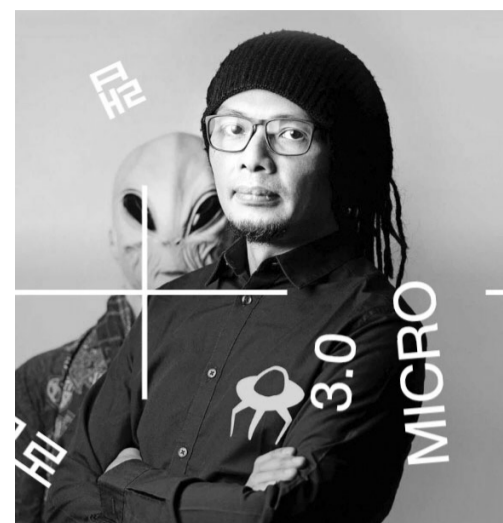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가 주최하고 미로센터가 주관하는 디지털 아트 캠프 ‘마이크로 랩 3.0(이하 캠프)’이 다음달 8일까지 미로센터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자연, 인간, 생태와 예술, 기술의 교차점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들을 조명하며, 다양한 예술실험을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기술과 예술의 협업’을 주제로 디지털 아티스트들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준다(계획이다). 국내외 예술가, 디지털 아트 전문가(초청) 등 총 60여 명이 참가할 예정.

참가자 확정된 예술가들은 ‘로그’, ‘최영준x박진현’, ‘방앤리’, ‘배준형’ 등이며 ‘랩엔데일’, ‘전해주’, ‘코뮤스트’, ‘바실리 수민(Vasily Sumin)’도 워크숍에 동참한다.

이외 베를린 출신 카지 포고다(Kazil Pofoda), 족자카르타에서 설립된 팀 벤자 크라이스트(Vensha Christ), 캣 오스틴(Kai Austen) 등 국내외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석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교육, 작품 창작 등을 지도한다.

전시 출품기획을 맡은 이승아 유아트랩 대표는



“디지털 예술 캠프 ‘마이크로 랩 3.0’은 미시적 관점에서 자연, 인간, 생태 등 사회현상들을 연구하고, 예술 실험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라며 “캠프를 매개로 국내외 디지털아티스트들이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K팝, 빌보드 뮤직어워즈상 풍년

BTS 정국·스키즈·뉴진스·블랙핑크 수상...스트레이 키즈 등 첫 무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스트레이 키즈 등이 미국 유명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서 수상했다.

정국은 19일(현지시간) 열린 시상식에서 솔로 데뷔곡이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 히트곡 ‘세븐’(Seven)으로 ‘톱 글로벌 K팝 송’ 부문 수상자로 지명됐다.

이날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수상자와 사전 녹화된 수상 소감 인터뷰가 공개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국은 “말로는 제가 느끼는 고마움을 다 표현하기 어렵다”며 “아미(방탄소년단 팬덤)와 이 노래를 사랑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박찬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세븐’을 작업하면서 모든 이들이 이 곡을 즐겨줬으면 했는데, 이 부문의 상을 받은 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다”며 “훌륭한 음악을 모두와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또 스트레이 키즈는 정규 3집 ‘★★★★’(파인스타)로 ‘톱 K팝 앨범’ 부문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은 데뷔 이래 총 네 장의 앨범을 연속해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려놓는 등 미국 시장에서 승승장구 중이다.



스트레이 키즈

멤버 장빈은 “저희의 고집이 담긴 음악, 앨범, 무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빈은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준 스테이(스트레이 키즈 팬덤)와 빌보드에 감사하다”며 “음악, 퍼포먼스,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블랙핑크는 총 180만명을 동원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톱 K팝 투어링 아티스트’에 선정됐다. 뉴진스는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수상자로 뽑혔다. 뉴진스의 해린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것만큼의 행복을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과연 비둘기에게 먹이를 쥐도 될까?

순창 출신 양정숙 동화작가 그림책 ‘돌기네 집’ 펴내

동물들 바라보는 마음은 제각각 다르다. 사람에게 따라 동물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은 달리 표현된다.

도심의 비둘기는 더러 애완의 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골칫거리일 수 있다. 과연 비둘기에게 먹이를 나눠줘도 될까. 이 부분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 외에도 인간과의 조화로운 삶 등과도 연계돼 있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순창 출신 양정숙 동화작가 그림책 ‘돌기네 집

(가문비 어린이)을 펴냈다.

작품은 돌기 부부가 아파트 베란다 실외기에 집을 짓고 사는 내용 등이 모티브다. 할머니가 밥을 잘 주어서 돌기 부부는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런데 할머니의 막내딸이 돌기 부부를 쫓으려고 한다. 막내딸은 흑여 실외기가 고장 나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한다. 할머니와 막내딸 중 누가 옳을까? 과연 우리는 동물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아니 어떻게 보살펴야 할까?



한편 양정숙 작가는 조선대에서 문예창작을, 광주교육대 대학원에 서 아동문학을 전공했다. 1995년에 ‘수필과비평’ 수필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무등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됐다. 그동안 동화집 ‘구리구리 똥개구리’, ‘감나무 위 꽃단지’, 그림동화 ‘세류 음악회’, ‘섬진강 두꺼비다리’ 등을 펴냈으며 그동안 천강문학상, 민들레문학상, 광주전남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공 창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